전남, 넘쳐나는 '길'

생태로 등 89곳 1974km '포화 상태'
道, 39억 '조선수군 재건로' 추가 조성
시·군 "관리·운영, 열악한 재정 악화"

순천만 '생태길'

강진 '정약용 남도유배길'

담양 죽녹원 '대나무 숲길'

전남도 내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숲길, 해안길, 역사길 등 무려 89곳에 1974km의 길이 조성되는 등 '길'이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도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들여 450km의 조선수군 재건로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선수군 재건로는 구례~곡성~순천~보성~장흥~강진~진도~해남 등 8개 시·군을 지나는 450km로 광특회계 22억85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시·군비 13억9000만원 등 39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최근 조선수군 재건로 안내시스템 구축 기본 및 설계용역 착수보고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가이드북과 안내책자를 만들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출전장, 유숙 및 행적지에 조형물을 조성하게 된다.

조선수군 재건로는 정유재란 시 3도 수군통제사로 재수임된 이순신 장군이 칠천량해전에서 전멸한 조선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군사·무기·병선 등을 모으면서 해남 명량대첩지까지 이동한 길이다.

도는 지난 2012년 말 개통한 구례·순천역의 119km 백의종군로와 함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0억6600만원이 소요된 이 백의종군로에 지금까지 걷기 행사로 3000명, 순례답사로 1437명 등이 찾는데 그치는 등 전남 곳곳의 '길'이 투자만큼 성과가 적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이들 '길'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관리운영을 맡은 시·군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등 공모사업에 참여해 정부부처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 역시 소액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가 너도나도 '길 조성사업'을 벌이는 것도 원인이라는 볼멘 소리도 있다. 현재 정부부처 가운데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이 각기 별도의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에 이에 따라 신규 길 조성은 자제하기로 했으나, 조선수군 재건로는 지난 2012년 실시한 고증 및 기초조사 연구용역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돼 추진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길이 모두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조성한 뒤 성과가 드러난 곳만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인권 좋아졌다

인권지표 8%P ↑…교통약자 이동수단 도입 등 성과

'인권도시' 광주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6일 "2013년 기준으로 100개의 인권지표 실천도를 평가한 결과, 전년에 비해 평균 8.1%포인트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권헌장의 5대 영역 18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인 100개 인권지표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것이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이 전년 대비 14.2%나 상승해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으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8.2%)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6.3%)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6.3%)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5.3%) 순으로 개선됐다.

특히 환경권과 안전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68.4%)과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41.6%) 등에서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최저생활보장, 여성권리, 아동·청소년·노인 돌봄 등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은 상대적으로 개선율이 낮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치선 광주시 민주인권정책담당은 "지난 2012년 도입된 광주인권지표는 국내외 도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국내외 인권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인권지표는 인권 정책이 얼마나 개선됐는 지를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인권정책 향상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음-카카오 합병…시총 3조 인터넷 기업 탄생

10월 출범…포털·모바일 시장 판도 변화

국내 2위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합병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시가총액 규모(카카오는 장외거래 금액 기준)가 3조원을 넘는 거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탄생하게 됐으며, 네이버가 주도해온 포털과 모바일 시장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를 출범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8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연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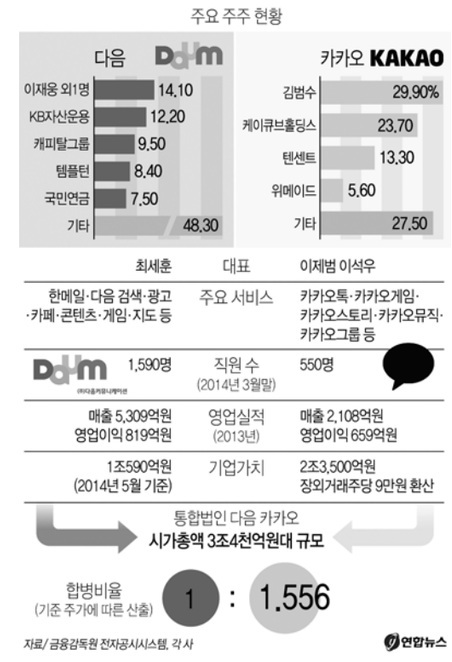
다음 최세훈 대표는 "카카오의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다음이 보유한 우수한 콘텐츠, 서비스 비즈니스 노하우, 전문기술이 결합하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혁신적인 서비스로 포스트 모바일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양사의 합병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통합법인은 모바일을 비롯해 통신기술(IT) 전 영역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정보-생활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은 기준 주가에 따라 산출된 약 1대1.556 비율로, 피합병법인인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다음의 발행신주와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양사 합병이 이뤄지면 시가총액 3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는 셀트리온(시가총액 5조690억원)에 이은 코스닥시장 2위 규모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다음-카카오 합병 공식 발표



전남도 '가로수 길' 조성에 81억 투입

97곳 220㎞에 상록수 심어

전남도가 26일 "올해 81억원을 투입해 순천시 지봉로변 먼나무 가로수 2㎞, 목포시 고하대로변 느티나무 가로수 0.4㎞ 등 97개소, 220㎞에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1년 '제2차 가로경관 10개년 계획(2011~2020년)을 수립해 지금까지 150만3000그루, 5993㎞의 가로수를 조성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식재된 주요 수종 및 수종 분포 비율은 벚나무 15만5000그루, 배롱나무 13만1000그루, 무궁화 12만2000그루, 이팝나무 6만 그루, 가시나무 3만 그루, 후박나무 2만5000그루, 동백 2만4000그루, 기타 95만6000그루 등이다. 낙엽수와 상록수의 비율은 6대4다.

도는 올해부터는 가시나무, 먼나무, 후박나무, 동백, 소나무 등 상록수로 식재해 사계절 푸른 가로수길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구온난화로 수목의 생육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난대상록 가로수길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화순 배롱나무 가로수, 2008년 곡성 소나무특화 가로수, 2012년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가로수, 2013년 완도 장보고대로 난대가로숲길 등이 도내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병언식' 기업 재건 앞으론 불가능

기업회생 절차 차명 인수 원천 차단…'통합 도산법' 개정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6일 "기업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주가 법정관리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차명인수를 시도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거래·지분 관계에 비춰 사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사주를 통해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입힌 뒤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에는 아예 회생계획안을 심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 회사나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허위자료를 내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기회생죄'를 적용해 엄벌하도록 벌칙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통합도산법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재산은닉 등을 사기회생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했지만 차명인수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운암동방면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의원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추천 골목상권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연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